

# 일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의 융복합적 연구

조미경<sup>1</sup>, 정현<sup>2\*</sup>

<sup>1</sup>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2</sup>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강사

## A Convergence study of the Effects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 on Clinical stress in Nursing students

Meekyung Cho<sup>1</sup>, Hyun Jeong<sup>2\*</sup>

<sup>1</sup>Professor of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sup>2</sup>Instructor of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간호학과 학생 211명으로, 통계자료는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여학생, 학교만족도,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가 낮을수록, 수간호사와의 관계를 어렵게 느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의사소통 능력과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주 영향 요인은 실습만족도, 의사소통 능력과 성별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중재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습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관련변수 파악과 다각적인 방안의 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공감능력, 의사소통 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융복합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 on clinical stress of college students in the convergence society. The participants were 211 college students,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It was found that: nursing students showed higher clinical stress in case of lower level of school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clinical satisfaction, the difficult of relationship with head nurse, and female student.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ere found between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stress. Th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stress were clinical satisfaction, communication skill and gender. In order to reduce clinical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it is needed to find various ways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such as educational courses and intervention, and to figure out associate variables and multilateral research to enhance clinical satisfaction.

**Key Words** : Nursing students,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stress, Convergence study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실무중심의 학문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간호이론을 임상실습 현장에서 실제로 통합하고 적용해 봄으로써 잠재력, 창의력, 응용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

\*Corresponding Author : Hyun Jeong (hhuuyynn@naver.com)

Received September 4,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Revised October 1,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를 갖게 된다[1]. 최근 한국간호교육평가원[2]은 학습성과 기반 교육 및 현장실무역량을 강조함에 따라 간호 임상실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간호임상실습을 통해 간호학생은 배운 내용을 실제 대상자에게 적용해봄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고 대상자에게 전인간호와 총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통합적 경험을 얻을 수 있어서[3] 매우 중요하다. Chan[4]은 간호학생들이 실습현장을 간호기술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으로 인식하고,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전문직 안에 내재해 있는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 등을 적용함으로써 능력이 개발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간호임상실습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학생들은 이론을 임상실무에 적용하는 어려움뿐 아니라 낮은 임상 환경과 예상할 수 없는 위기상황,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관계, 간호수행, 과중한 업무 등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의료인과의 만남이나 환자들의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를 제공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5]. 임상실습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실습에 대한 흥미와 욕구, 만족도 감소 뿐 아니라 인내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등을 초래하고 실습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가져올 수 있다[6].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전인간호 수행이나 간호전문직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간호학 학습과 간호수행에 방해요인이 된다[7]. 나아가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학생들에게 신체적 건강 문제와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 전공에 대한 회의감뿐 아니라 학업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8],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을 위해서는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9].

공감은 ‘감정을 불러낸다’라는 의미로, 신뢰, 이타심, 협동, 사랑, 관용과 같은 모든 사회적 가치의 근원이 되며, 다른 사람의 감정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면 의사소통과 관계 유지를 비롯한 많은 일 처리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10]. Rogers[11]는 공감의 개념을 ‘타인의 감정 및 정서, 내적 경험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통합된 복합적인 행동’으로 보았다. 간호사의 공감은 치료적 관계의 핵심으로 환자의 안녕과 간호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12].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직종의 사람과 만나고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13].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수행능력의 주요 요인인 의사소통 능력[14, 15] 대인관계능력 향상[14],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으며[14],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공감이 간호대학생 개인의 내적요인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고 있다.

간호사는 대상자와 함께 최적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긴밀하고 조력적인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하여 대상자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16]. 의사소통 능력은 임상에서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 보호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환자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사의 임상 핵심역량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17]. 하지만 간호대학생은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인해 임상실습 시 환자 및 보호자를 만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9], 임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9,18,19]. 이처럼 의사소통 능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주된 관련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9].

종합하여 볼 때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들은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등을 단편적으로 연구하였거나[13, 18], 임상실습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간호대학생을 포함시켜 연구하였다[19]. 또한 공감과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20]에서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13,20], 학년[13,20], 전공 및 임상실습 만족[9, 13]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 실습을 경험한 3·4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 스트레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 의사소통 능력 및 일반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준을 낮춤으로써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 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소통 능력,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 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융복합 사회에서 일 간호대학생들의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대상자는 D광역시 일 대학의 간호학과 3, 4학년으로 2017년 3월 7일부터 14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만 대상자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수집된 내용의 연구 목적 이외는 사용하지 않을 것,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와 중단이 가능한 것, 개인정보의 비밀유지와 익명성 보장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 목적과 설문 내용 및 대학의 소요시간 등을 설명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참여 동의서를 받고 총 216부 설문지를 배부하여 211부(97.7%)가 회수되었다. G power 프로그램에서 투입될 독립변수 10개,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 수는 172명 이었다.

### 2.3 연구 도구

공감능력: Davis[12]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를 Park[21]이 수정, 보완한 총 28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크게 인지적 공감능력(관점 취하기 와 상상하기 각 7문항)과 정서적 공감능력(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 각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척도이다. Kim[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의사소통 능력: Rubin[22]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ICC)을 Hurf[23]가 수정, 보완한 GiCC(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1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척도이다. Hurf[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Beck 등[24]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Kim과 Lee[25]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5개 영역은 실습환경,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실습업무부담, 대인관계갈등, 환자와의 갈등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등[2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 2.4 자료 분석

SPSS/WIN 1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그리고 공감능력, 의사소통 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공감능력, 의사소통 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실습스트레스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정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3학년이 48.8%, 4학년이 51.2%이었고 여학생이 89.6%이었다. 종교가 ‘없다’는 학생이 67.3%, 학교 만족도에는 ‘보통’ 56.4%, ‘만족’ 30.3% 이었으며, 전공만족도는 ‘보통’ 48.8%, ‘만족’ 43.1%로 대체로 만족하였다. 실습에서 어려웠던 관계는 ‘일반간호사’와의 관계에 57.3%, ‘환자’와의 관계에 20.9%로 높게 응답하였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3	103(48.8)
	4	108(51.2)
Gender	Female	189(89.6)
	Male	22(10.4)
Religion	Yes	69(32.7)
	No	142(67.3)
School satisfaction	Dissatisfied	28(13.3)
	Moderate	119(56.4)
	Satisfied	64(30.3)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	17(8.1)
	Moderate	103(48.8)
	Satisfied	91(43.1)
Clinical satisfaction	Dissatisfied	37(17.6)
	Moderate	121(57.3)
	Satisfied	53(25.1)
Difficult relationship in clinical practice	Head nurse	15(7.1)
	Staff nurse	121(57.3)
	Other field(doctor et al)	5(2.4)
	Patient	44(20.9)
	Colleague	26(12.3)

### 3.2 공감능력, 의사소통 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3점이었다. 하위요인 중, 정서적 공감의 공감적 관심이 3.64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적 고통이 3.13점으로 가장 낮았다. 의사소통 능력은 5점 만점에 3.60점이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14점이었고 하위요인 중, 실습업무부담 스트레스가 3.70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인관계갈등이 2.57점

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211)

Variables			Mean±SD
Empathy	total		3.43± .37
	cognitive	perspective taking	3.45± .52
		fantasy	3.50± .66
	affective	empathic concern	3.64± .62
		personal distress	3.13± .44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stress	total		3.14± .48
	inadequate clinical environment		3.44± .64
	unadvisable role model		3.21± .67
	load of work & assignment		3.70± .64
	interpersonal conflict		2.57± .78
	relationship with patient		2.76± .73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차이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학년( $t=-2.13, p=.034$ ), 성별( $t=3.78, p<.001$ ), 종교유무( $t=2.08, p=.038$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학년과 여학생, 종교 있음에 답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능력을 나타내었다. 의사소통 능력은 학년( $t=-2.43, p=.016$ ), 대학생활 만족도( $F=5.32, p=.006$ ), 전공만족도( $F=8.75, p<.001$ ), 임상실습 만족도( $F=5.76, p=.004$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사소통 능력은 학년( $t=-2.43, p=.016$ ), 대학생활만족도( $F=5.32, p=.006$ ), 전공만족도( $F=8.75, p<.001$ ), 임상실습 만족도

Table 3. Difference of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Empathy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stress	
		M±SD	t(p) / F(p)	M±SD	t(p) / F(p)	M±SD	t(p) / F(p)
Grade	3	3.37± .40	-2.13(.034)	3.53± .51	-2.43(.016)	3.19± .53	1.61(.110)
	4	3.48± .34		3.67± .33		3.09± .42	
Gender	Female	3.46± .37	3.78(<.001)	3.59± .43	-0.18(.853)	3.17± .47	2.48(.014)
	Male	3.14± .30		3.62± .48		2.89± .53	
Religion	Yes	3.51± .36	2.09(.038)	3.64± .45	0.83(.409)	3.19± .50	1.02(.309)
	No	3.39± .38		3.58± .43		3.11± .47	
School satisfaction	Dissatisfied	3.46± .42	2.69(.070)	3.46± .50	5.32(.006)	3.35± .47	6.45(.002)
	Moderate	3.37± .37		3.55± .42		3.17± .46	
	Satisfied	3.51± .36		3.60± .44		2.98± .49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	3.42± .45	0.69(.471)	3.30± .62	8.75(<.001)	3.34± .54	10.08(<.001)
	Moderate	3.39± .40		3.54± .41		3.24± .42	
	Satisfied	3.47± .33		3.72± .38		2.97± .49	
Clinical satisfaction	Dissatisfied	3.41± .44	1.46(.235)	3.44± .56	5.77(.004)	3.56± .37	32.28(<.001)
	Moderate	3.40± .38		3.58± .40		3.15± .41	
	Satisfied	3.51± .30		3.52± .36		2.82± .48	
Difficult relationship in clinical practice	Head nurse	3.42± .38	0.82(.513)	3.43± .59	1.53(.193)	3.38± .47	3.42(.010)
	Staff nurse	3.45± .39		3.61± .42		3.15± .46	
	Other field(doctor et al)	3.40± .30		3.53± .53		3.02± .36	
	Patient	3.43± .36		3.69± .40		2.94± .54	
	Colleague	3.30± .36		3.48± .45		3.28± .42	

( $F=5.76, p=.004$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학년과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그룹이 불만족한 그룹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별( $t=2.48, p=.014$ ), 대학생활 만족도( $F=6.45, p=.002$ ), 전공만족도( $F=10.08, p <.001$ ), 임상실습 만족도( $F=32.27, p<.001$ ), 실습에서 가장 어려웠던 관계( $F=3.41, p=.010$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의 실습 스트레스가 더 높았고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가 높다고 답한 그룹과 불만족한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3

### 3.4 공감능력, 의사소통 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공감능력은 의사소통 능력과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 $r=.40, p<.001$ ) 임상실습 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11, p=.115$ ). 의사소통 능력은 실습 스트레스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23, p<.001$ ). 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stress (N=211)

Variables	1	2	3
Empathy	1.00		
Communication skill	.402(<.001)	1.00	
Clinical stress	-.109(.115)	-.231(<.001)	1.00

1. Empathy: 2. Communication skill: 3. Clinical stress

### 3.5 임상실습 스트레스 영향 요인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의 성별,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실습에서 어려웠던 관계와 의사소통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의사소통을 제외한 변수들은 더미변수 처리하고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공차한계는 .938~1.0으로 0.1이상이고,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변수들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 $F=24.798, p<.001$ ), 실습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 $\beta=-.442$ ), 의사소통 능력( $\beta=-.128$ ), 성별( $\beta=-.122$ )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은 25.4%이었다. 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stress

	Clinical stress				
	B	$\beta$	R <sup>2</sup>	Adj R <sup>2</sup>	t(p)
Clinical satisfaction	-.331	-.442	.234	.231	-7.185 (<.001)
Communication skill	-.141	-.128	.250	.243	-2.095 (.037)
Gender	-.193	-.122	.264	.254	-2.029 (.044)

F=24.798,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이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기초처리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공감능력에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학년, 성별, 종교 유무였고 간호학과 3학년보다는 4학년 학생들이,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더 공감능력이 높았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의 학년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26]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감능력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26,27], 종교의 종류보다는 신앙심이 깊을수록 공감능력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27]와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간호학과 여학생과 4학년 학생이 공감능력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간호학과 학생들이 타과 학생들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 이로 인해 남학생은 갈등, 심리적 고통, 벗어나고픈 마음 등을 겪게 되어[28]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4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공감능력이 높게 측정된 것은, 공감능력은 타고나는 것뿐 아니라 길러지는 능력으로[29] 다양한 간호임상실습 경험과 공감관련 교육에 노출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또한 종교 있음으로 보고한 대상자가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종교 생활을 통해 자아성찰, 이타심 등의 공감의 속성이 강화된 것으로 생각되며, 공감이 종교와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30]도 보고되고 있어 보다 확실한 결론을 위해서는 종교의 종류나 신앙심의 깊이에 따라 간호대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의사소통 능력은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 3학년 보다 4학년의 의사소통 능력이 높았다는 결과[19]는 간호학 전공에서 이론이나 실습 과목의 세부영역에서 의사소통에 대해 다루고 있어, 3학년보다 4학년이 높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 실습을 만족할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게 측정된 결과[18, 19]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았다는 결과[16,18]와 연결되는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의 실습만족 향상을 위해 실습환경 조성이나 대인관계 훈련 등의 교육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임상 실습을 불만족하는 집단을 선별하여 불만족 요인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교에 대해 만족할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대학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는 간호대학생에게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학교생활에 어떤 점을 어려워하고 불만족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반영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별, 학교만족도, 전공만족도, 실습 만족도, 실습에서 어려웠던 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결과[19]와 일치하였다. 이는 부적절한 실습 교육 여건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실습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불안 등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5]. 따라서 여학생의 어떠한 특성이 임상실습에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추후연구를 통해 확인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생각된다.

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실습에 불만족 할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결과[13,18,31]와 일치하였다. 이에 학교 차원에서 임상실습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나 임상실습지 관계자와의 원만한 조력관계를 이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실습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전공에 대해 만족할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13,15]와 일치하였다. 이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간호학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동기부여적 성향이 높아 임상실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임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

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학교차원에서 간호학 전공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공에 대해 불만족하는 학생의 경우 간호학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적용해야 하며,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 등을 통해 전공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32]. 또한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시 관계를 맺음에 있어 수간호사를 어려워할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수간호사 및 일반간호사를 어려워할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고[9], 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선행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5]. 이는 간호학생은 수간호사를 통해 현장감 있는 다양한 지식을 전달받는 동시에[5], 평가자와 피 평가자의 관계를 형성[33]하므로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의사소통 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 의사소통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결과[31,34]와 일치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실습만족도, 의사소통 능력, 성별 순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25.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은 본 연구 대상자 학교에 자대병원이 없음으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에 실습환경에 대한 분석 및 평가와 산학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실습만족도를 향상시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보고한 결과[34]와 일치하였다. Lee와 Gul[31]는 의사소통 능력이 임상실습시 환자와 동료, 문제해결, 효율적인 실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주요 역량으로 간주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Cho[35]는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교육은 대상자에게 교육 요구도를 조사해야 하며, 강의식 전달 교육이 아닌 실제 상황의 체험 위주의 역할극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간호대학에서는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별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유의한 영향요

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33]에서 남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주요 요인은 4개, 여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주요 요인은 12개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하였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임상실습지도자의 역할 미 확립이나 실습몰입방해에 대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를 고려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및 중재가 필요하다[33].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융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 4학년 학생, 여학생의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간호학과 학생들의 공감 점수가 높았다. 4학년의 경우, 학교에 대해 만족할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습에 대해 만족할수록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점수가 높았다. 여학생, 학교에 대해 만족할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습에 대해 만족할수록, 환자보다 수간호사에 관계를 어렵게 느낄수록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실습 만족도, 성별과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간호학생의 실습에 대한 감정, 태도, 몰입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실습 환경이 간호대학생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긍정적 실습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한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해 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추후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한 교과과정 적용이나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 후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공감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차이를 보이므로 다른 공감 도구를 사용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J. W. Park & N. S. Ha. (2003).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1), 27-35.
- [2] S. Yang. (2017). *Standards for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Name of Web Site. <http://kabone.or.kr>
- [3] M. W. Kim. (2003). *Development of Objectives of Nursing Clinical Education, based on the Nursing Core Competency*.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4] D. Chan. (2002). Development of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inventory: us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learning environment studies to assess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the hospital as a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1(2), 69-75.
- [5] J. S. Kim, J. J. Sun & H. S. Kim. (2009).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0(1), 63-76.
- [6] J. S. Won, K. S. Kim, K. H. Kim, W. O. Kim, J. H. Yu, H. S. Jo & I. S. Jeong. (2000). The Effect of Foot Massage on Stress in Student Nurses in Clinical Practice.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7(2), 192-207.
- [7] M. Y. Park & S. Y. Kim. (2000).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s' first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1), 23-35.
- [8] S. J. Whang.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2), 05-13.
- [9] M. A. Kang & S. K. Lee. (2016).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4), 452-461. DOI: 10.5977/jkasne.2016.22.4.452
- [10] B. D. Perry & M. Szalabitz. (2015). *Bone for Love*(J. H. Hwang, translation). Seoul: Minumin.
- [11] C. R. Rogers. (1975). Empathic: An unappreciated of be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2), 2-10.
- [12]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 [13] H. S. Jeong & K. R. Lee. (2012). Empath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9), 6044-6052.  
DOI: 10.5762/KAIS.2015.16.9.6044
- [14] J. A. Kim. (2017).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Stress Coping and Empathy on Clinical Competency among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eagu.
- [15] E. J. Ji. (2014).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mpathic Ability on Communication Ability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3), 1685-1697.
- [16] M. S. Yoo, Y. S. Kim, Y. S. Kim, M. S. Hwang & J. A. Ahn. (2012). Analysis of Self-Esteem,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roblem-Solving Capacity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Health communication*, 7(1), 18-27.
- [17] T. W. Reader, R. Flin & B. H. Cuthbertson. (2007). Communication skills and error in the intensive care unit. *Current Opinion in Critical Care*, 13(6), 732-736.  
DOI: 10.1097/MCC.0b013e3282f1bb0e
- [18] E. Y. Yoem. (2017).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Lab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 Society*, 17(4), 320-30.  
DOI: 10.5392/JKCA.2017.17.04.320
- [19] S. Y. Yang. (2016).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of the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6(9), 286-96.  
DOI: 10.5392/JKCA.2016.16.09.286
- [20] H. M. Hwang. (2017). Relationship among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Health communication*, 12(1), 1-10.  
DOI: 10.5392/JKCA.2017.17.04.320
- [21] S. H. Park.(1994). *Empathy, Empathic understanding*, Seoul: Wonmisa.
- [22] R. B. Rubin, E. E. Graham & J. T. Mignerey. (1990). A longitudinal study of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Education*, 39(1), 1-14.
- [23] K. H. Hur.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80-408.
- [24] D. L. Beck & E. Srivastava. (1991).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3), 127-133.
- [25] S. L. Kim & J. E. Lee.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98-106.
- [26] H. J. Kim & M. S. Yi. (2015).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37-245.  
DOI: 10.5977/jkasne.2015.21.2.237
- [27] C. Ouzouni & K. Nakakis. (2012). An exploratory study of student nurses' empathy. *Health Science Journal*, 6(3), 534-552.
- [28] Y. R. Park. (2009). The Adaptation Process of Male Students in Colleges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6(4), 449-458.
- [29] I. K. Lee. (2014). To Seek 'Homo empathicus' : A Study on the Empathy Discourse - based Character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8(1), 311-342.
- [30] B. Duriez. (2004). Are religious people nicer people? Taking a closer look at the religion - empathy relationship.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7(3), 249-54.
- [31] O. S. Lee & M. O. Gu.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749-59.  
DOI: 10.5762/KAIS.2013.14.6.2749
- [32] E. Y. Hong. (2017). Convergence Study of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Image and Satisfaction of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85-93.  
DOI: 10.15207/JKCS.2017.8.10.085
- [33] H. K. Hyoung, Y. S. Ju & S. I. Im. (2014). A Concept Mapping Study on Clinical Stress for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4), 394-404.  
DOI: 10.11111/jkana.2014.20.4.394
- [34] S. H. Han. (2017).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10), 217-27.  
DOI: 10.14257/AJMAHS.2016.10.51
- [35] I. Y. Cho. (2015).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Skill,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Related Educational Need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4), 2593-601.

DOI: 10.5762/KAIS.2015.16.4.2593

조 미 경(Cho, Meekyung)

[정회원]



- 1985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1990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0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6년 9월~2018년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간호관리, 간호윤리
- E-Mail : mkcho@hit.ac.kr

정 현(Jeong, Hyun)

[정회원]



- 2015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 관심분야 : 간호관리, 시뮬레이션
- E-Mail : hhuuyynn@naver.com